

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, 청년농업인과 간담회 가져

✎ 김철희 기자 | ⌚ 승인 2025.03.08 10:19



청년농업인과 간담회 모습. 사진=문경지사 제공

[문경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문경지사(지사장 김종학)는 지난 6일 지사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했다고 8일 밝혔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.

또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.

문경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50개의 농가에 23ha를 지원하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올해부터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'선임대후매도사업'은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김종학 문경지사는 "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

김철희 기자 chk1500@naver.com

저작권자 ©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